

여수·광주공항 코로나19 이전 상태 ‘정상화’...무안공항 ‘폭망’

여수·광주공항 등 국내 지방공항의 여객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은 국내·국외선 모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14개 공항 1일 평균 여객 실

김해공항도 2만3234명으로 2019년 대비 116%를 기록했다. 이어 여수공항 170%(1741명→2955명), 광주공항 102%(5552명→5683명), 포항공항 153%(257명→392명), 원주공항 107% (305명→326명) 등이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국제선은 여객 실적이 전무하고 국내선도 올해 27명

준 18명으로 0.2%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김포(1만1705→36명), 김해(2만6275→51명), 제주(7310→12명), 대구(7056→24명)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2019년 1358에서 올해 단 1명도 이용하지 않았고, 무안·양양공항도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무하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의 연도별 여객실적은 2020년 131명, 2021년 8월 0명이다.

1일 평균 여객실적 여수 2년 전 비해 170%·광주 102%
 무안공항, 올해 국제선 ‘0명’·국내선 27명...19년比 5%

적이 2019년 1만2951명에서 2020년 9878명으로 24% 하락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만2496명으로 96%에 달했다. 김포공항의 국내선 1일 평균 여객실적은 2019년 5만817명에서 2020년 4만6181으로 21% 하락했지만, 올해 8월 기준 5만9234명(102%상승)으로 2019년 실적을 넘어섰다.

으로 2019년 570명 대비 5%에 불과했다.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국내선의 연도별 여객실적은 2018년 5851명, 2019년 6886명, 2020년 5253명, 2021년 8월 6722명으로 2019년 대비 98%에 달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다만, 7개 국제공항 국제선의 1일 평균 여객실적은 2019년 7954명 대비 올해 8월 기

기동취재본부



무안국제공항.

광주에도 ‘파라인플루엔자’ 주의보...코로나 닮은꼴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는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이 광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환절기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본의료기관 호흡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원인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지난달 표본검체 165건 중 57건(34.5%)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데 이어 10월 첫째주에는 54.8%(31건 중 17건)로 검출률이 확연히 높아졌다. 특히 9월에는 6세 이하 영·유아층에 국

한했던 것이 10월 들어서는 성인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유행 연령층의 변화가 확인됐다.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주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고, 2~6일의 잠복기를 거쳐 흔히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증상을 일으키며 천명(췌췌거름)이나 근육통, 구토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이슬 기자

“캐스퍼 취득세 지원 합의?” 광주시의회 ‘부글부글’

시의회 “결정도 안됐는데 난감”
 시 “합의 표현 의원들 불만 인듯”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CASPER)’를 구매하는 광주 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광주 시의회가 뿔이 났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캐스퍼가 연착륙하는데 큰 성원을 보내주시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게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1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경차 등록현황을 토대로 올해 수요를 500대로 예측, 1대당 평균 20만원의 지원액을 잡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500대로 확산해 5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목표로 시의회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조례 개정의 키를 잡고 있는 시의회가 구체적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시가 해당 상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캐스퍼 경차의 취득세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한 차례 한적이 있지만, 시가 마치 의회가 합의한 것 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산업위원장은 “시가 한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상임위 의원들과 한번도 교감이나 회의가 없었는데 시의회와 조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 난감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발의로 할 지, 집행부 발의로 할 지 아직 결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너무 오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시민에게 취득세 지원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의장과 산전위원장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가 진행중인데, 시의회와 모두 합의를 마쳤다는 표현에 의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광주, 9월 취업자 ↓ ...전남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 하락

9월 취업자 수 통계조사 결과, 광주는 줄고 전남은 소폭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전남이 광주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의 ‘9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 수는 7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0.3%)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명(6.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00명(0.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000명(1.2%) 증가했지만 공공업 1만1000명(-10.2%), 농림어업 3000명(-21.9%), 건설업은 2000명 줄었다.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광주 비임금근로자는 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000명(-4.5%) 감소했다. 이중 자영업자는 7000명

(-4.7%), 무급가족 종사자는 1000명(-3.2%) 줄었다.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1만명(-35.3%) 감소했고, 실업률은 2.4%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전남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2만9000명(2.9%) 늘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만5000명(10.9%), 농림어업 1만7000명(7.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2000명(1.9%)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 1만2000명(-10.9%), 건설업 1만명(-12.2%),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3000명(-2.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39만3000명으로 1만1000명(2.7%) 증가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 **곡성** **사랑**

2021.10.29. **금** - 31. **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YouTube

곡성어린이대축제

